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수빅에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누수 문제로 인해 수빅 시내와 가까운 리조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시설도 침대나 책상, 캐비닛, 에어컨, 개별 화장실 등 시설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와이파이 또한 잘 터졌습니다. 이사한 리조트는 시설이 리조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없었고 로비를 제외한 곳에서는 와이파이기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종종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항을 요청하면 피드백이 느린편입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처음 수빅에 도착하면 레벨 테스트를 하며, 토익 스피킹 그룹과 1대1 선생님을 배정해 줍니다. 첫날은 각자에 대한 자기소개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은 뒤 각자 배부 된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8시부터 5시까지 1시간씩 토익스피킹, voca, reading, mmc, face to face 과목은 이렇게 되며, 매번 선생님을 찾아가 수업을 하면 됩니다. 각각의 과목과 과목 내 파트를 공부하는데 선생님 별로 게임을 하며 흥미를 이끌어내는 선생님도 있었으며, 과제를 내주시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과제는 간단한 과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으며, 선생님들은 전부 착하시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부담없이 수업을 듣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첫 주 주말은 Battan White Corals Beach Resort를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바람을 맞으며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복을 가져와야하며, 수영장이 매우 깊으므로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재미를 위해 튜브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튜브는 한국이 아닌 수빅 근처

	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mt.samat에 갔습니다. 많은 미션들이 준비되어있었으나 비가 오고 전기 문제 때문에 건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로 준비해 갈 것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요트투어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 날씨가 좋아서 아주 즐겁게 요트를 타고 놀았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으니 수영복을 챙기시고 해가 매우 강하니 선크림을 잘 발라야 합니다.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멀미약을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6,7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였으나 제가 갔을 때는 첫 주에 비가 많이 왔으나 지내는 동안에는 맑은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상할 수 없이 비가 갑자기 오거나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부는 날도 많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가도 다음날은 맑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이며, 우산이 들기 귀찮으면 우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8시부터 5시까지 있기 때문에 해가 강한 시간에는 실내에 있어 평소에는 선크림이 필요하지 않으나 밖에 나가면 해가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도 필요합니다. 또한 에어컨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긴옷도 필수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지내면서 생명의 위험같은 것은 없었으나, 조심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매번 건물을 들어갈 때면 경찰들이 소지품을 확인했으며 건물에 가드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길거리를 다니면 어린이들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호시간을 잘 지키고 늦게 다니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저희는 사정상 기숙사가 아닌 리조트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좋았으며 청소도 가끔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앞에 수영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수업 후에 자주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o) 외부식당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에 계시는 급식 선생님께서 한식을 정말 맛있게 해주십니다. 저녁을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 해도 너무 맛있어서 저녁을 학교식당에서 해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음식은 한식으로 해주셨으며, 가끔 필리

	편 음식도 해주셨습니다. 필리핀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시내도 나가면 많은 종류의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미국음식점 등 아주 다양하며, 대부분 맛도 좋았습니다. 가격은 보통 맛있고 양이 많으면 한국 돈으로 6000원 정도로 먹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도 맛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항상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거리 별, 인원 별로 가격이 다르며, 4명에서 시내(harbor point)로 나가면 콜비 포함하여 150페소면 이용가능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콜비가 필요없으므로 100페소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다른 교통시설로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등이 있었으나, 저희는 택시가 편하고 싸서 택시만 이용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비행기	535,000	
보험료	33,720	
유학허가증(SSP)	150,000	
생활비	648,450	550\$
합계	1,367,17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정말 선생님들과 많이 친해지기 때문에 한국 선물이 필수입니다. 필리핀에서 고민하면 선물이 진부해집니다.. 정말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필요없습니다. 많이 가져오면 정말 짐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물건은 필리핀에서 사도 괜찮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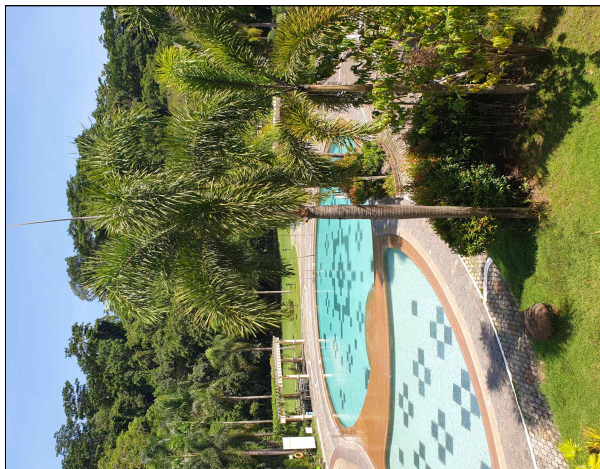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한달이 길고 다같이 살기 때문에 정말로 친해집니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 어딜가서도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달 동안 영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늘게 됩니다. 영어를 말하는데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지원하신 것이라면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필리핀 선생님들 대부분 젊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친해지기 쉽고 정말 헤어질 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필리핀의 문화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지내면서 선생님들과 정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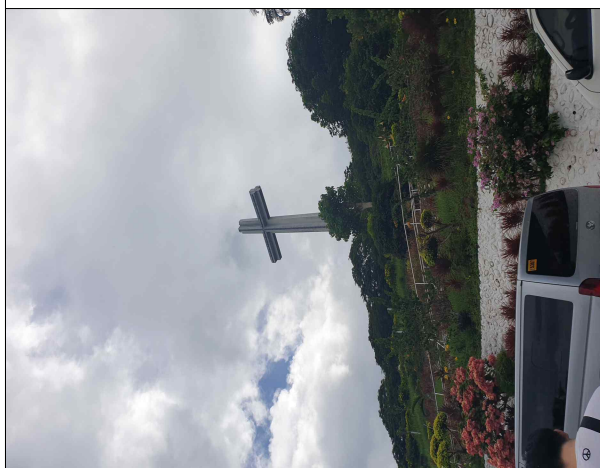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지내던 리조트 수영장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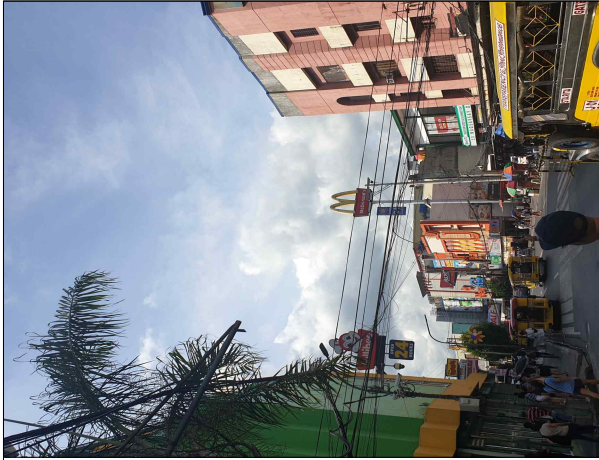
자주 보이던 도마뱀



Mt.samat



요트투어



시내풍경



마지막..ㅎ